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www.kmi.re.kr

발행일 2025년 2월 28일
편집·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02 국내 항만 주요 동향
 16 국외 항만 주요 동향
 27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활성화 및 2단계 재개발사업 재추진
- ▶ 광양항, '24년도 컨테이너 물동량 200만 TEU 달성
- ▶ 동해신항, 수소 수입 전용부두 개발

국외 항만 주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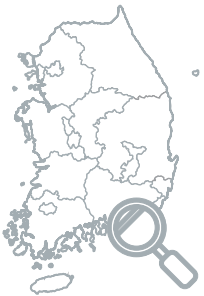
- ▶ 춘절 영향 및 美 관세 조치로 '25년 1월 중국 물동량 큰 폭 증가
- ▶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경제특구에 바이오-LNG 허브 설립
- ▶ 파나마, 트럼프 압박에 운하 내 홍콩계 항만회사의 항만운영권 해지 검토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 컨테이너 무역 불균형 증대
- ▶ EU 등 대미 수출국, 트럼프 철강 관세 맞대응
- ▶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로 석유화학 업계 기대감 상승

0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1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활성화 및 2단계 재개발사업 재추진

- ◆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내 복합항만지구에 해양기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목적으로 산학연 간 업무협약을 체결함¹⁾
 - 업무협약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참여함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기관 클러스터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특히 참여기관은 클러스터 내 입주 규모, 방식, 도입 시설 및 세부 활용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각 기관의 입주수요를 반영해 부지 이용 면적을 상호 조율할 예정임
- ◆ BPA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 수요를 반영하여 클러스터 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 ◆ 한편, BPA는 지난 '23년 12월에 일시 정지되었던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의 사업 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재개했다고 밝힘²⁾
 -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컨소시엄*은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대내외 불확실성 등에 따른 사업성 재검토 필요성을 사유로 용역을 일시 정지한 바 있음
 - *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한국철도공사
 - 부산시컨소시엄은 2단계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추가 과업으로 사업성 재검토를 포함하여 용역 재개를 위한 기관별 협력 사항들을 올해 초 합의함
 - 다만, 당초 과업 기간이 1년이었으나 사업성 재검토 등 추가 과업으로 인해 기간은 다소 연장될 수 있다고 밝힘
- ◆ BPA는 이번 사업 계획 수립 용역 재개로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이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5.02.14.),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3260>(2025.02.18. 검색)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5.02.03.),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3218>(2025.02.18. 검색)

2 MSC, 국내 최초 단일 선사로 연간 처리량 400만 TEU 돌파³⁾

-  세계 1위 컨테이너 선사인 MSC가 '24년 부산항에서 단일 선사로는 최초로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400만 TEU를 처리했다고 밝힘
 - 이는 국내 주요 컨테이너 항만인 인천항(약 356만 TEU)과 광양항(약 201만 TEU)의 연간 물동량을 뛰어넘는 규모로 단일 선사가 국내 항만에서 처리한 물량으로는 최대치임
-  이 같은 물동량 증가는 부산항 터미널 혼잡 완화와 내부환적 운송(ITT) 게이트 개방 확대 등 서비스 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BPA와 터미널 운영사의 지속적인 노력에 일환임
 - '23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환적운송시스템(TSS)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것에 이어 터미널 운영사와 공동으로 터미널 간 환적 화물의 육상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적 모니터링 시스템 포트아이(Port-i) 도입의 영향으로 분석됨
 - MSC는 BPA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자가 터미널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신규 노선을 개척하는 등 전년 대비 약 16%의 물동량 증가세를 이끌었으며 특히 환적 물동량의 경우 약 21%의 증가세를 기록함
-  BPA는 “MSC의 기록은 부산항이 글로벌 환적 허브로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이며, 앞으로도 터미널 운영사와 함께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5.02.04.),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3223>(2025.02.18. 검색)

2) 인천항



1 '24년 전자상거래 및 Sea & Air 물동량, 전국항만 중 최대 기록⁴⁾

- 인천항만공사(IPA)는 '24년 인천항의 전략화물인 전자상거래 및 Sea & Air* 물동량이 약 6만 9천 톤으로 전국항만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힘
- * 해공복합운송(Sea & Air) :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을 연계해 일괄 운송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해운이 지닌 경제성과 항공의 신속성을 결합한 형태의 운송
- 이 중 전자상거래 물동량은 2만 5,640톤으로 국내 항만 중 11년 연속으로 가장 많은 물동량을 기록함
 - 이 같은 실적은 전년 대비 29.6% 증가한 수치로 중국으로부터의 해외직구 수요 증가가 원인으로 인식됨
 - 인천항의 경우 남항 카페리, 인천세관 해상 특송장 등 다양한 관련 인프라로 전자상거래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

전국 주요 항만
전자상거래 물동량 현황

구분	'23년			'24년			전년 대비 증감률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인천항	2,074	17,709	19,783	1,743	23,897	25,640	29.6%
평택항	918	9,895	10,814	120	5,290	5,290	-51.1%
부산항	904	1,578	2,482	1,132	1,632	2,764	11.4%
군산항	0	1,211	1,211	0	1,499	1,499	23.8%

(단위: 톤, %)

- 한편, Sea & Air 물동량의 경우 같은 기간 4만 3,288톤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한 수치를 기록함

전국 주요 항만
Sea & Air 물동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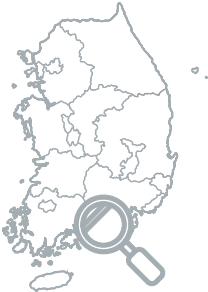
구분	'22년	'23년		'24년	
		물동량	증감률	물동량	증감률
인천항	26,341	37,483	42.3%	43,288	15.5%
평택항	16,088	21,467	33.4%	41,272	92.3%
군산항	26,291	39,258	49.3%	33,261	-15.3%
부산항	144	350	143.0%	404	15.3%
합계	68,864	98,558	-	118,225	-

(단위: 톤, %)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5.02.06.),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9418&boardKey=217&menuKey=400¤tPageNo=1\(2025.02.19. 검색\)](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9418&boardKey=217&menuKey=400¤tPageNo=1(2025.02.19. 검색))

3) 여수·광양항



1 광양항, '24년도 컨테이너 물동량 200만 TEU 달성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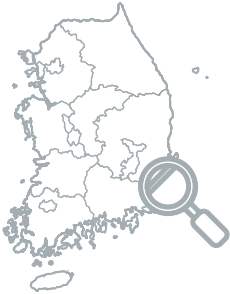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광양항의 '24년 기준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186만 TEU) 대비 7.8% 증가한 210만 TEU를 기록했다고 밝힘
- 광양항은 부산항과의 투 포트 시스템 구축 효과 및 글로벌 경기 물동량 증가에 따라 '18년 역대 최대인 241만 TEU를 기록한 이래 '23년 186만 TEU까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올해 반등 추세로 전환함
- '24년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대비 5.7% 증가, 환적 물동량은 23.2% 증가하였는데, 환적 물동량의 경우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1개 선사 1개+ 항로 유치 캠페인의 성과로 분석됨
- 또한 글로벌 얼라이언스 재편(25.2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세계 1위 선사인 MSC와 MAERSK 등을 대상으로 포트 세일즈를 강화하는 등 해운 동맹 재편 관련 광양항의 항만 연결성을 개선하는데 주력함
- YGPA는 터미널 관리·운영반, 선사 전담반, 화주 전담반, 동향 분석반 등 4개반을 구성 및 운영하여 부정기선, 공'컨' 리포지셔닝 및 환적 물량 집중 유치 활동을 추진한 것이 광양항 200만 TEU 재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5)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2025.01.24.), [https://www.ygpa.or.kr/hmpg/ypga/comu/news/anuc/bordContDetail.do?mode=W&bbs_no=213&pst_no=17ABAB42202045539D96056AC4C42F45\(2025.02.19. 검색\)](https://www.ygpa.or.kr/hmpg/ypga/comu/news/anuc/bordContDetail.do?mode=W&bbs_no=213&pst_no=17ABAB42202045539D96056AC4C42F45(2025.02.19. 검색))

4) 울산항



① 해상 화학사고 예방 및 공동대응체계 구축 지원 강화⁶⁾

- 울산항만공사(UPA)는 2월 5일 ‘울산항 해상 화학사고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협약을 통해 UPA는 울산해양경찰서, 한국예선조합 울산지부와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해상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 수습을 위해 협력하고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임
 - UPA는 울산항 내 수용성 위험물 화재 진화용인 알콜형 포소화약제 77톤을 구매하고 이적을 지원하여 울산항 내 33척의 예인선은 소화약제 113.9톤을 적재하게 되었으며, UPA는 알콜형 포소화약제 구매와 항만예선 이적재를 계속 지원할 계획임
 - 화학사고 발생 시 울산해경은 예선조합과 공동 대응하고, 울산항 내 소화약제 보유현황을 관리할 계획임
 - 예선조합은 동원 가능한 예선 지원과 알콜형 포소화약제를 관리하고 위급 상황 시 즉시 사용하기로 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6)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5.02.05.),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ldx=671&mid=0501010000&idx=14756>(2025.02.18. 검색)

2 UPA, '25년 울산항 운영계획 확정⁷⁾

UPA는 '24년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냄

- 울산항은 '24년에 전년 대비 3.6% 증가한 1억 9,950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했으며, 4년 연속 부두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항만 최초로 AMP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함
- 또한, 복신항 액체부두 1선석 준공 및 에너지허브 1단계 가동으로 200만 톤 규모의 신규 물동량 창출기반을 확보함

UPA는 '25년 4대 핵심 추진과제로 '친환경 에너지 물류 선도', '고객유치 경쟁력 강화', '경영관리 효율화', '지속가능 경영 실현'를 설정함

- LNG·메탄올·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인프라의 적기 구축을 통해 울산항을 미래 친환경 에너지 물류 중심지로 도약시킬 계획임
- 수익 사업모델 다각화를 위해 해상풍력 유지보수 사업의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울산항 남신항에 해상풍력 지원부두 건설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임
- 또한, 운영 효율성을 높여 부두 생산성을 높이고, 항만시설 및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계획임

UPA는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할 계획임

- 부두기능 전환 및 재배치를 통해 신규 물동량을 창출하고, 유지 준설에 14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임
- 또한, 울산항 데이터 통합플랫폼인 포트와이즈(Portwise)의 기능 고도화를 통해 울산항 내 선석 운영 및 부두 기능을 최적화할 계획임
- 그 외에도 맞춤형 마케팅 전략 도입, 조직 개편과 인력 운영 체계 개선, 재무 건전성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에너지 도입을 확대한 친환경 항만으로 나아가고 항만 안전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7) 부산일보(2025.02.14.),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021414191884944\(2025.02.18. 검색\)](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021414191884944(2025.02.18. 검색))

3 UPA, 캐나다 앨버타주 대표단과 울산항과 수소산업 협력방안 모색⁸⁾

UPA는 캐나다 앨버타주의 수소산업 투자기관인 앨버타산업중심지협회(AIHA) 및 에드먼턴 글로벌(Edmonton Global) 관계자와 울산항과의 협력을 논의함

- 캐나다 앨버타산업중심지협회와 에드먼턴 글로벌 관계자들은 울산항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울산항 그린수소 물류허브 사업과 수소산업 연계 가능성을 검토함
- UPA는 '30년까지 북신항에 그린수소(암모니아) 수입 터미널을 조성할 계획이며, 앨버타주는 캐나다 최대 수소 생산시설이 위치한 지역으로 울산과 유사한 에너지 산업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양측 협력이 기대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8) 코리아쉬핑가제트(2025.02.14.),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43845(2025.02.18. 검색)

5) 평택·당진항



① 24년 물동량, 전년 대비 0.1% 증가한 1억 1천만 톤 기록⁹⁾

- 📊 '24년 평택·당진항의 총 물동량은 1억 1,671만 4천 톤으로 전년(1억 1,660만 7천 톤) 대비 0.1% 증가함
 - 컨테이너 화물은 92만 4,736TEU로 전년 대비 12.7% 증가한 반면, 비컨테이너 화물량은 1억 265만 8천 톤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함
 -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91만 854TEU로 전년(81만 1,801TEU) 대비 12.2% 증가했으며, 환적은 1만 3,882TEU로 전년(8,488TEU) 대비 63.5% 증가함
 -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는 '23년 추가 개설된 중국 항로(평택-난통-타이창-인천)를 통한 수출입 물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품목별로는 철재류가 1.8% 증가한 반면, 완성 자동차 물량은 3.5%, 액체화물은 5.4% 감소함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해운물류 업계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평택·당진항의 항만물류 경쟁력과 항만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밝힘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9) 연합뉴스(2025.02.06.), [https://www.yna.co.kr/view/AKR20250206106500061?input=1195m\(2025.02.19. 검색\)](https://www.yna.co.kr/view/AKR20250206106500061?input=1195m(2025.02.19. 검색))

6) 포항항



1 포항항 물동량 3년 연속 지속적인 감소¹⁰⁾

- 지난 1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청)은 포항항 물동량이 '21년 5,971만 8천 톤을 정점으로, '22년 5,086만 3천 톤, '23년 5,018만 8천 톤, '24년 4,834만 4천 톤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24년 물동량은 3년 전인 '21년과 비교해 총 19.0%(1,137만 4천 톤) 감소함
- 포항항 입출항 선박 또한 일반 화물선 기준 '21년 11,784척, '22년 10,841척, '23년 10,977척, '24년 9,912척으로 지속적인 감소세가 나타났으며, 컨테이너선도 '21년 476척에서 '22년 339척, '23년 328척, '24년 304척으로 감소함
- 포항청은 '20년 코로나19 사태, '22년 태풍 힌남노 여파, 철강경기 위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포항항의 물동량과 선박 입출항 실적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함
- 포항신항은 철광석과 석탄이 전체 수입화물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일만항은 일본에서 자동차를 들여와 포항에서 분해한 후 다시 컨테이너에 싣고 반제품 형태로 러시아에 수출하는 물량이 전체 물동량의 약 40%를 차지했던 것으로 알려짐
- 포항청은 화물 다변화, 노후화된 부두 재개축,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 활성화 등을 통해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예정임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10) 대구일보(2025.02.19.), <https://www.idaegu.com/news/articleView.html?idxno=629423>(2025.02.19. 검색)

7) 동해·묵호항



1 동해신항 수소 수입 전용부두 개발¹¹⁾¹²⁾

-  동해신항 4번 선석을 수소 수입 전용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제4차 항만기본계획(동해·묵호항 항만기본계획)이 변경·고시됨

 - 이는 당초 '25년 말 수정이 예정되었던 계획이 1년 앞당겨진 것으로, 해양수산부가 강원권역 수소화합물 공급 인프라 구축의 시급성을 반영하여 일정이 조정된 결과임
-  이번 변경을 통해 동해신항 4번 선석의 취급 품목이 기존 기타광석에서 화학공업생산품(수소화합물)으로 전환됨

 - 기존 동해신항은 석탄, 광석, 시멘트 등 환동해권 산업 원자재 수출입 거점항만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4번 선석의 민간 투자 불확실성이 지속되었음
 - 이에 강원도는 '23년 하반기부터 정부에 수소에너지 거점 도시 조성을 위한 수소항만 전환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및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따른 수소화합물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어 변경이 확정됨
-  삼성물산과 GS에너지가 동해신항 4번 선석에 약 8,500억 원을 투자하여 '28년까지 수소 전용 부두 및 인수기지를 건설할 계획임

 - 주요 시설로는 5만 DWT급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계류시설(연장 320m, 전면수심 DL(-)15.0m), 8만 m² 규모의 부두, 3만 톤급 저장시설 4기 및 각종 설비 시설 등이 포함됨
 - 이를 통해 연간 585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서 수소화합물 혼소발전 감축 비중의 약 7.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강원도는 이번 수소 전용항만 개발이 수소특화단지 조성,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조성 등 수소산업 육성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함

 - 친환경 물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강원도가 청정에너지 중심지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11) 해사신문(2025.01.22.), [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637\(2025.02.19. 검색\)](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637(2025.02.19. 검색))

12) 에너지신문(2025.01.22.),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071\(2025.02.19. 검색\)](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071(2025.02.19. 검색))

동해신항 계획평면도



자료: 에너지신문(2025.01.22.),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071>(2025.02.19.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8) 목포항

① 목포 남항, 세계적 수준 친환경선박 산업 중심지로 도약¹³⁾

- 목포 남항이 글로벌 친환경선박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임**
 - 국제해사기구(IMO)의 '2023 온실가스 감축 전략' 발표에 따른 전 세계적 선박 친환경 연료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미래 시장 선도를 위한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20년부터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4건(약 1,560억 원 규모)을 통해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 향상 기술개발, 친환경선박 시험평가 실증기술 개발 등을 진행 중임
 - 특히 전기추진 차도선은 목포 인근 해상에서 실증 운항 중이며, 세계 최초의 2,600톤급 해상실증선박(K-GTB)도 지난해 10월 목포에서 진수식을 완료함
-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실증기반 구축사업'도 총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하여 친환경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음**
 - 목포 남항 교육연구지구에는 충전시험동과 관제유지보수동이 준공되었으며, 연구동, 전력시험동, 국제협력복지동은 '25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임
 - 목포시는 이러한 연구 기반을 통해 친환경선박 산업을 육성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13) 목포시청 보도자료(2025.02.06.), [https://www.mokpo.go.kr/www/mokpo_news/press_release/report_material?idx=533016&mode=view&search_type=title&search_word=%EB%82%A8%ED%95%AD&page_scale=15&start_date=2022-02-19&finish_date=2025-02-19&search_date=y\(2025.02.19. 검색\)](https://www.mokpo.go.kr/www/mokpo_news/press_release/report_material?idx=533016&mode=view&search_type=title&search_word=%EB%82%A8%ED%95%AD&page_scale=15&start_date=2022-02-19&finish_date=2025-02-19&search_date=y(2025.02.19. 검색))

9) 대산항



1 머스크(Maersk) 신규 정기노선 개설¹⁴⁾

- 📍 머스크는 정기노선 개설을 통해 2월 10일부터 대산항에 2,500TEU급 컨테이너 기항을 시작함
 - 대산항에 머스크가 기항하는 것은 최초이며, 정기노선에는 2,500TEU급 컨테이너선 5척이 투입되어 순환 운항할 계획임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월 10일 서산시, 한국머스크(주), (주)동방, 한화토탈에너지스(주) 등과 함께 대산항 4부두에서 신규항로 개설을 기념하는 취향식을 가짐
 - 대산항을 출항한 선박은 중국 다렌·텐진신항·칭다오를 거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수라바야, 필리핀 다바오를 기항하게 됨
 - 기존 대산항 기항 컨테이너선은 1,800~2,000TEU급이 주를 이뤘으나, 이번 2,500TEU급 선박의 정기항로 개설로 향후 동남아시아 등으로의 수출입 항로가 다변화가 기대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4)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5.02.10.), <https://daesan.mof.go.kr/ko/board.do?menuidx=3019&bbsidx=108711>(2025.02.18. 검색)

10) 마산항



① 창원특례시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 추진¹⁵⁾

- 창원특례시(창원시)는 지역 내 해운항만 및 물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산항, 부산항 신항 및 진해항을 대상으로 ‘2025 창원시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함
 - 창원시정연구원과 협업하여 ‘창원특례시 항만기술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계획인 ‘항만기술산업 육성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 항만기술산업은 항만장비 및 정보통신시스템 개발, 제작, 유지·관리를 포함하는 산업으로, 스마트항만 발전과 연계하여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정부는 ’23년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항만기술산업법’이 ’25년 1월부터 시행됨
- 창원시는 기계·장비 제조업이 강점이며, 부산항신항 및 진해신항과 같은 항만 인프라를 활용하여 항만장비 제작과 유지보수(MRO) 산업 육성에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26년 부산항신항 개장 20주년을 맞아, 신항과 주변 지역의 변화상을 정리한 변천사를 제작하고, 항만물류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
 - 마산항, 부산항신항 및 진해항을 중심으로 해운항만산업을 활성화하고, 스마트항만 및 항만기술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5) 해사신문(2025.02.03.), [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208\(2025.02.19. 검색\)](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208(2025.02.19. 검색))

0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춘절 영향 및 관세 조치로 인해 '25년 1월 물동량 큰 폭 증가¹⁶⁾

- ◆ 중국 주요 항만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미국이 추가 관세 시행과 긴 춘절 연휴를 앞두고 제품을 조기 선적함에 따라 '25년 1월 항만물동량이 크게 증가함
 - 중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상하이항은 '25년 1월 500만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면서 '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함
 - 또한, 지난해 중국 기업들은 미국으로 약 5,250억 달러(약 700조 원) 규모의 제품을 수출하였으며, 이는 사상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임
- ◆ 지난달 사상 최대 물동량을 기록한 이후 미국은 중국산 제품 전체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함
 - 지난 2월 4일, 미국은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추가로 미국 내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발표함
- ◆ 중국은 이에 대응해 보복관세를 시행하였으나 적용 범위가 미국산 수입품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의견임
 - 중국은 미국산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제품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미국산 원유, 농업기계, 대형 엔진 차량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부과함¹⁷⁾
 - 또한, 중국은 25가지 희귀 금속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해당 금속 중 일부는 전자제품과 군사 장비 제조에 필수적인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 ◆ 이러한 관세 조치 및 추가 무역 조치 가능성 등에 따라 중국의 대미 수출 물동량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Bloomberg Economics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의 40%가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GDP의 0.9%가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함
 - 한편, 최근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무역 제재를 피하기 위해 멕시코, 베트남 등을 경유해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이 보편 관세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무역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6) Bloomberg(2025.02.10.),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2-10/chinese-ports-see-record-traffic-ahead-of-us-tariffs-and-holiday>(2025.02.18. 검색)

17) BBC(2025.02.10.), [https://www.bbc.com/news/articles/cvg8zg7ll09o\(2025.02.18. 검색\)](https://www.bbc.com/news/articles/cvg8zg7ll09o(2025.02.18. 검색))

2 미국 제재 유조선 최근 중국 항만 일부 입항¹⁸⁾

- 미국의 제재를 받은 유조선들이 최근 중국 산둥성 둥잉(Dongying)항에 입항한 것으로 추정됨
 - 이는 지난 1월 초 중국 산둥성 항만그룹이 미국 재무부의 제재를 받은 선박의 화물 하역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이후 이뤄진 입항으로 정유사들의 운영 어려움에 따라 일부 완화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남
 - 둥잉항은 산둥항만그룹이 운영하는 주요 항만인 칭다오, 르자오, 옌타이 대비 규모가 작은 항만으로 해당 항만을 통한 입항은 10건 미만으로 미국에 제재한 선박을 통한 중국의 전체 원유 수입량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해당됨
- 지난 1월 미국의 제재 조치로 원유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해운 요금이 상승하면서 무역 흐름이 둔화되는 등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에 대해 지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함
 - 세계 최대 이란산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일부 기업은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란산 원유를 종종 말레이시아산으로 위장하여 유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미국 정부는 2월 초 이란산 원유를 중국으로 운송하는데 도움을 준 개인과 유조선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함에 따라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 美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최대 압박 정책 부활을 예고하면서 향후 이란산 원유의 글로벌 무역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8) REUTERS(2025.02.13.),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alternative-chinese-terminals-emerge-take-sanctioned-tankers-sources-say-2025-02-13/>
(2025.02.18. 검색)

2) 아시아



1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경제특구(JS-SEZ)에 바이오-LNG 허브 설립¹⁹⁾

- ▶ 양 국가는 협력을 통해 바이오 액화천연가스 중심의 바이오연료 허브를 조호르-싱가포르 경제특구(JS-SEZ)²⁰⁾내에 설립할 계획임
 - 말레이시아 조호르주의 탄중 랑삿(Tanjung Langsat)항에 개발 예정인 바이오연료 허브는 연간 약 35만 톤의 바이오-LNG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투자규모는 약 3억 3,700만 달러로 예상됨
 -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 기업은 말레이시아의 바이오연료 기업 BAC Renewable Energy (BAC RE), TLP Terminal 싱가포르의 Dovechem Group 등 3개 기업임
 - BAC RE는 개발을 총괄, Dovechem Group은 부지 제공 및 운영 담당, 조호르 주정부 산하 기업인 TLP Terminal은 항만 운영 관리를 각각 담당할 계획임
 - 프로젝트는 단계별로 추진될 예정으로 1단계에서는 연간 3만 3천 톤의 Bio-LNG 생산 및 처리 능력 확보 및 약 7,500m³ 규모의 저장시설을 구축, 2단계에서는 연간 35만 톤 규모로 확장하는 한편, Bio-Methanol 저장 및 가공 기능을 추가할 계획임
- ▶ 말레이시아는 팜 오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폐기물이 풍부하며, 이를 활용하면 연간 최대 330만 톤의 바이오연료 공급 가능하다고 BAC RE는 추산함
 - 이를 통해 해운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고, 해상 연료로 Bio-LNG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라 밝힘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19) Reccessary (2025.02.07.), <https://www.reccessary.com/en/news/my-market/joint-malaysia-singapore-biofuels-hub> (2025.02.19.검색)

20) 조호르-싱가포르 경제특구(JS-SEZ) : 2025년 1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조호르주에 경제특구 설립 관련 협정을 체결, 해당 경제 특구 면적은 3,500km² 이상으로 제조업, 항공우주, 관광,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고부가가치 산업투자를 유치할 계획

2 제벨 알리항, 하파그로이드-머스크의 새로운 '제미니' 서비스 첫 입항²¹⁾

🌐 두바이 제벨 알리항이 하파그로이드와 머스크 간 새롭게 구축된 '제미니 협력(Gemini Cooperation)' 서비스의 첫 선박을 맞이함

- 15,000 TEU 컨테이너선 '휴스턴 익스프레스(Houston Express)'가 2월 5일 제벨 알리항에 입항하여 새로운 제미니 인도양 서비스를 시작함
- 이를 통해 인도 아대륙, 중동, 북유럽 및 남유럽 간 무역 연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 이를 기념하기 위해 DP 월드와 하파그로이드 고위 경영진이 제벨 알리항에서 특별 리셉션을 개최함

- DP 월드는 제미니 협력 첫 선박의 입항으로 제벨 알리항의 중동 주요 해상 허브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 하파그로이드 측은 제미니는 신속하고 유연하며 신뢰할 수 있는 해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제벨 알리항과 같은 강력한 항만-터미널 네트워크가 비전 달성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였음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3 HMM, 인도 바드반 항만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²²⁾²³⁾

🌐 HMM은 지난 1월 23일 인도 JNPA(자와할랄네루 항만청)와 바드반(Vadhvan) 항만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바드반항 개발은 인도의 주요 항인 나바셰바(Nhava Sheva)항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새롭게 추진하는 대형 개발사업임
- 인도 정부는 '40년까지 총 94억 달러를 투자해 세계 10대 컨테이너항만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9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하는 바드반항의 총 9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연간 약 2,300만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으며, 2만 4천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박의 기항도 가능함

21) The Maritime Standard(2025.02.19.), <https://www.themaritimestandard.com/jebel-ali-port-welcomes-new-gemini-service/>(2025.02.25. 검색)

22) 해사신문(2025.01.23.), <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725>(2025.02.20. 검색)

23) Offshore Energy(2025.01.23.), <https://www.offshore-energy.biz/hmm-jnpa-to-cooperate-on-indias-vadhvan-port-development/>(2025.02.20. 검색)

- 또한 인도내륙철도(DFC), 국가도로와 인접하여 내륙 물류와의 연계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됨
- HMM은 최근 성장률이 높은 인도 시장의 공략을 위해 기존 FIM(인도-지중해), IAX(인도-북미동안) 노선에 더해 올해 2월부터 INX(인도-북유럽) 노선을 확대할 계획임
- HMM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도의 주요 거점항만을 마련함으로써 컨테이너 운송과 항만 사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4 일본, 미국의 자동차 관세에 경제적 타격 우려²⁴⁾

- 일본의 1월 수출은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美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이 추진될 경우 급격한 감소가 예상됨
- 美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동차 관세를 약 25% 수준으로 부과할 계획이며, 이르면 4월부터 부과될 수 있다고 밝힘
- 일본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국가로서, 미국은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약 21조 엔 (1,38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 중 자동차가 약 28%를 차지함
- 일본의 아키토모 코키 경제학자는 자동차가 일본의 최대 수출품이므로 이번 자동차 관세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함
- 또한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다카히데 키우치 수석 경제학자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가 향후 2년간 일본의 GDP를 최대 0.2%까지 낮출 수 있다고 추정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4) REUTERS(2025.02.19.), [https://www.reuters.com/world/japan/japans-exports-rise-4th-month-us-auto-tariffs-feared-2025-02-19/\(2024.02.21. 검색\)](https://www.reuters.com/world/japan/japans-exports-rise-4th-month-us-auto-tariffs-feared-2025-02-19/(2024.02.21. 검색))

3) 미주



1 파나마, 트럼프 압박에 운하 내 홍콩계 항만회사의 항만 운영권 해지 검토²⁵⁾

- 미국은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파나마 운하에서의 중국 영향력 축소를 요구하고 있음**
 - 현재 파나마 운하 내 5개 항만 중, 운하 양 끝단에 있는 발보아항과 크리스토팔항 등 2개 항만은 홍콩계 CK 허치슨 홀딩스의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음
 - CK 허치슨 홀딩스의 자회사는 '97년부터 파나마 정부와 운영 계약을 체결했으며, '21년에 계약을 갱신해 '47년까지 운영권을 확보한 상황임
 -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파나마 운하의 통제·운영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라고 압박하고 있음
- 파나마 정부는 미국 측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홍콩계 항만회사인 CK 허치슨 홀딩스의 자회사(Hutchison Ports PPC)와의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음**
 - 파나마 정부는 2개 항만에 대한 운영권 계약 해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음
 - 현재 파나마는 CK 허치슨 홀딩스 자회사의 자금 흐름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측의 국가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양국 간 기술적 검토 협의체를 제안함
 - 파나마는 '17년 중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운하 개발과 운영에 중국 자본을 계속 받아들였으나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힘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파나마, 美 정부 선박의 파나마 운하 통행료 면제 발표에 반박²⁶⁾

- 미국은 파나마 정부가 美 정부 선박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파나마는 즉각 반박함
 - 美 국무부는 파나마 정부가 美 정부 선박의 파나마 운하 통행료 면제를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파나마운하청은 운하의 통행권이나 통행료와 관련하여 바뀐 것은 없다며 美 국무부의 발표를 부인함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 국가 간 비공식 합의 단계에서 미국이 일방적 발표하며 압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파나마 운하의 중국 영향력을 문제 삼아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 재환수를 주장하며 파나마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중국이 운하를 장악하고 있다며 홍콩계 업체의 항만 운영권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美 국방부도 파나마 운하 방어를 포함한 안보상의 이익을 양국이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운하 공동 방어에 대한 파나마 대통령의 방문 요청이 있었음을 밝힘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6) 경향신문(2025.02.06.),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61055001>(2025.02.18. 검색)

4) 유럽

① 발렌시아항, '24년 물동량 증가²⁷⁾

- 발렌시아 항만공사는 '24년 통계 보고서를 발표하며, 총 물동량은 5.11%, 컨테이너 물동량은 14.15% 증가했다고 밝힘
- '24년 발렌시아항의 총 화물 처리량은 전년 대비 5.11% 증가한 8,060만 톤이며, 컨테이너 물동량은 14.15% 증가한 547만 TEU를 기록함
- 한편, 컨테이너 물동량은 수출이 전년 대비 0.13% 증가로 전년도와 유사한 데 비해, 수입은 10.60% 증가했으며, 환적 물량은 18.77%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
- 중국 화물은 702,633TEU와 791만 톤이 처리되었고, 미국 화물은 368,298TEU 및 452만 톤이 처리되어, 두 국가가 전체 교역량의 3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사우디아라비아(+59.64%), 우크라이나(+44.02%)는 화물 톤수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알제리(+24.88%), 터키(+23.73%), 이스라엘(+25.22%)도 상당한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은 주로 식품, 자동차 및 부품, 와인 및 음료, 건설 자재, 종이, 화학제품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기계류, 건설 자재, 자동차 부품, 화학제품, 담배, 코코아, 커피, 향신료, 미국과의 주요 수출입 품목은 건설 자재, 기계류, 식품, 와인 및 음료, 화학제품인 것으로 분석됨
- 산업별 물동량은 비금속 광물(+33.13%), 비료(+4.19%), 화학제품(+9%), 농축산 및 식품(+2.48%)이 증가한 데 반해, 에너지 부문(-40.41%)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7) Port Technology(2025.02.13.),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valenciaport-sees-growth-in-trade-with-china-and-us/>(2025.02.19. 검색)

2 CLdN, 리버풀항 브룩클뱅크 터미널 대규모 투자 완료²⁸⁾

 룩셈부르크 기반 해운 및 물류 회사인 CLdN은 리버풀항 브룩클뱅크 터미널에서 수백만 파운드 규모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화물 운송 효율성과 역량을 향상함

- 주요 업그레이드 및 개선 사항은 새로운 게이트 시스템 및 터미널 운영 시스템 도입으로 화물 하역 및 픽업 절차 개선, RO-RO 링크스팬* 확장을 통해 리버풀-더블린(Liverpool-Dublin) 노선의 선박 수용 능력 증가, 부두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크고 친환경적인 선박이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임

* 선박을 해안에 연결하여 적재 및 하역 작업을 하는 데 사용되는 구조물로,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도록 높이를 조절할 수 있음

- CLdN은 리버풀항과 더블린항 간, 주 17회 왕복 항로를 운영하며 아일랜드 간 핵심 화물 운송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는 CLdN의 영국 항만 인프라 확장 전략의 일환인 것으로 분석됨
- 이번 투자를 통해 리버풀 지역의 숙련된 일자리 창출과 더 큰 선박 운용을 통한 탄소 배출 감축이 기대됨
- 한편, CLdN은 제브뤼헤-티즈포트(Zeebrugge-Teesport) 노선에서 운항 빈도 및 화물 적재 용량 증가를 단행하며, 유럽 물류 네트워크 강화를 지속하고 있음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8) Port Technology(2025.02.18.),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cldn-concludes-infrastructure-expansion-at-liverpool-terminal/\(2025.02.19. 검색\)](https://www.porttechnology.org/news/cldn-concludes-infrastructure-expansion-at-liverpool-terminal/(2025.02.19. 검색))

5) 오세아니아



① 호주 보타니항(Port Botany), 철도 터미널 확장²⁹⁾

- DP World와 NSW Ports는 시드니 보타니(Port Botany)항 철도 터미널 확장을 위해 4억 달러를 공동 투자함
 - 철도 터미널의 연간 처리 용량이 기존 40만 TEU에서 100만 TEU로 두 배 이상 증가할 예정임
 - NSW Ports는 컨테이너 터미널과 물류 단지를 위한 새로운 시설에 1억 4,8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주요 항만 인근에 대규모 물류 시설을 배치하는 세계적 추세의 일환임
- 이 프로젝트는 '25년 6월 착공될 예정이며, 2년 내 완공될 것으로 예상됨
 - 철도 터미널 확장은 600m 길이의 지역 열차를 수용할 수 있도록 5개의 새로운 철도 선로와 레일 장착 갠트리 크레인을 추가하는 것이 포함됨
 - DP World는 이번 투자를 통해 철도 기반 물류 시스템의 확장이 가능해지고, 화물의 도로에서 철도로의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시드니 대기 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함
 - NSW Ports는 새로운 철도 터미널이 컨테이너 운송을 철도로 전환함으로써 도로의 트럭 증가를 억제하고, 주(State) 내 컨테이너 공급망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예상함
- 보타니항은 호주에서 유일하게 모든 컨테이너 터미널이 On-dock 철도와 직접 연결된 항만으로, 대규모 도심 및 지역 간 내륙 터미널과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음
 - NSW Ports의 On-dock 철도 투자 프로그램 1단계는 '23년 말 완료되었으며, 2단계는 TEU당 4.28달러의 부두 요금을 인상하여 '25년 7월부터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며 이 요금은 투자 비용 회수 이후 철회됨

29) Splash(2025.01.28.), <https://splash247.com/port-botany-set-for-major-rail-upgrade/>(2025.02.19. 검색)

보타니항 전경



자료: Splash(2025.01.28.), <https://splash247.com/port-botany-set-for-major-rail-upgrade/>(2025.02.19.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6) 아프리카



1 더반항, 세계 최대 자동차 운반선 접안³⁰⁾

- ◆ 더반항은 세계 최대 자동차운반선인 ‘헤그 오로라’의 원활한 접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 국영 항만·철도 운영사인 트랜스넷(TNPA)은 이번 접안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물동량 회복을 지원하는 주요 성과를 달성함
 - ‘헤그 오로라’는 친환경 선박으로 LNG를 연료로 사용하며, 태양광 패널을 장착하고 있으며, 향후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연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됨
- ◆ 더반항은 이번 성공적인 접안이 새로운 예인선 도입을 통한 해양 서비스 강화의 결과이며, 글로벌 해운업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힘
 - 더반항은 지속적인 운영 개선을 위해 터미널 운영자 및 고객과 협력하고 있으며, 맞춤형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0) Engineering News(2025.01.31.), <https://www.engineeringnews.co.za/article/port-of-durbans-tugs-berth-worlds-largest-car-carrier-2025-01-31>(2025.02.19. 검색)

03 품목 및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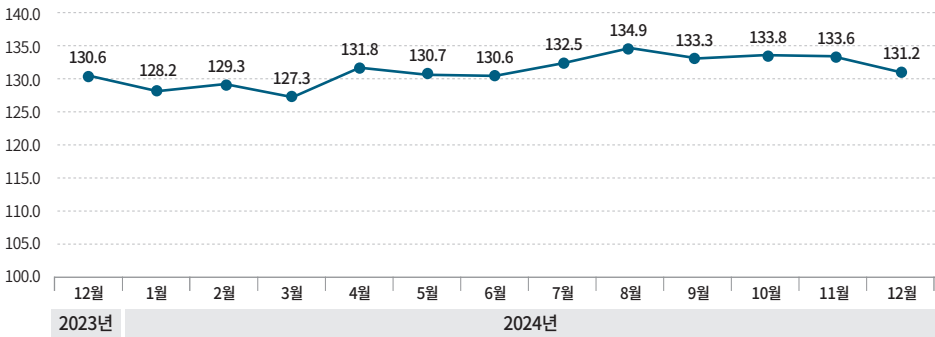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처리지수

1 '24년 12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전월 대비 1.8% 감소³¹⁾

- '24년 12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월 대비 1.8%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 0.5% 증가한 131.2p를 기록함
 - 중국 항만에서의 컨테이너 물동량 지수가 141.4p로 전월 대비 1.7%, 전년 동월 대비 7.3% 큰 폭으로 감소함
 - 유로존 북부와 독일 지역의 12월 항만물동량 지수(North Range Index)는 113.0p로 전월 대비 0.9% 하락, 전년 대비 8.1% 증가함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Total	130.6	128.2	129.3	127.3	131.8	130.7	130.6	132.5	134.9	133.3	133.8	133.6	131.2	-1.8	0.5
China Index	152.6	143.8	139.1	137.2	154	144.2	144.3	146.3	148.8	146.3	146.8	143.8	141.4	-1.7	-7.3
North Range Index	104.5	95.5	108.8	112.3	110.9	111.1	110	111	114.3	112.2	113.6	114.0	113.0	-0.9	8.1

주: 2015=100, 계절조정
자료: IISL, <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1124>(2025.02.18.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1) ISL(2024.01.31.), <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0924>(2025.02.18. 검색)

2 컨테이너 무역 불균형 증대³²⁾

- BIMCO(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uncil)는 글로벌 컨테이너 무역의 수출입 불균형이 '19년 이후 약 33% 증대됐다고 밝힘
 - '19년 이후 글로벌 컨테이너 시장은 8% 성장해 '24년 1억 8,300만 TEU에 도달했지만, 지역 간 수출입 불균형은 33% 증가했다고 밝힘
 - '19년 지역 간 컨테이너 불균형은 5,900만 TEU였으나 '24년은 8,500만 TEU로 증가함
 - 특히, 이러한 무역 불균형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빠른 수출 성장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불균형은 '19년 2,900만 TEU에서 '24년 4,200만 TEU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또한, 역사적으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불균형이 가장 컸으나 '24년에는 북미 지역에서의 불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북미 지역에서는 1TEU를 수출할 때 2.5TEU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1TEU 수출 시 2.3TEU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유럽, 지중해, 남미 지역 역시 불균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이러한 컨테이너 무역 불균형은 컨테이너 선사들의 공컨테이너 재배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급증하는 헤드홀(headhaul) 노선을 수용하기 위해 선사들이 더 많은 대형 선박을 투입해야 하지만, 백홀(backhaul) 노선의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운송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2) Riviera(2025.02.13.), [https://www.rivieramm.com/news-content-hub/news-content-hub/regional-container-trade-imbalances-increase-33-83855\(2025.02.18. 검색\)](https://www.rivieramm.com/news-content-hub/news-content-hub/regional-container-trade-imbalances-increase-33-83855(2025.02.18. 검색))

2) 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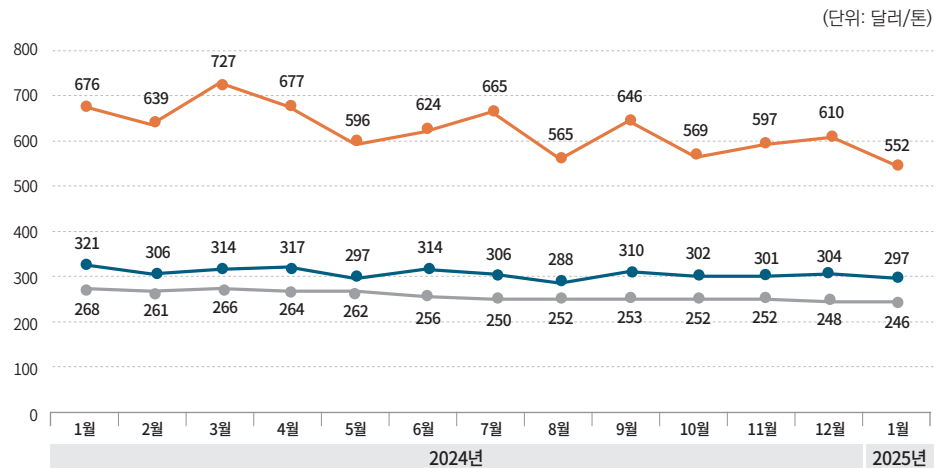


1 '25년 1월 밀, 콩, 옥수수의 수입 단가는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감소 추세 기록³³⁾

- ▶ '25년 1월 밀의 수입 단가는 전년 동기대비 7.5% 감소한 톤당 297달러를 기록, 같은 기간 옥수수는 8.1% 감소한 246달러, 대두는 18.3%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여 552달러를 기록함
- ▶ 전월 대비 실적에서도 밀, 옥수수는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대두의 경우 전월 대비 9.5%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
- ▶ 하지만 대두 수입 단가의 하락세는 '23년~'24년 예년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한데 따른 하락 폭으로 이 같은 하락세가 지속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됨

곡물별 수입단가 추이

● 밀
● 대두
● 옥수수



밀과 옥수수 수입단가 추이

(단위: 달러/톤)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밀	321	306	314	317	297	314	306	288	310	302	301	304	297	-2.1	-7.5
대두	676	639	727	677	596	624	665	565	646	569	597	610	552	-9.5	-18.3
옥수수	268	261	266	264	262	256	250	252	253	252	252	248	246	-0.6	-8.1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곡물 가격동향(2025.01.31.), [https://www.krei.re.kr/grain/page/242\(2025.02.19. 검색\)](https://www.krei.re.kr/grain/page/242(2025.02.19. 검색))

2 중국의 곡물 수입 감소로 글로벌 농산물 수출업체에 영향 예상³⁴⁾

-  '24-'25년 중국의 옥수수 및 밀 재고량은 약 10년 만에 최저치에 도달할 전망이지만, 글로벌 곡물 업체들에게 추가 공급의 기회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임

 - 미국 농무부(USDA)는 '24-'25년 중국의 곡물 수입량을 옥수수의 경우 1,000만 톤(최근 4시즌 평균대비 57% 감소), 밀은 800만 톤(최근 4시즌 대비 32% 감소)으로 대폭 하향 조정됨
 - 이에, 주요 곡물 수출국들은 과거의 높은 수출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새로운 공급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됨
-  과거 중국의 곡물 수입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2010년대, 중국의 옥수수 및 밀 수입량은 연평균 300만 톤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함

 - 하지만 중국 정부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 곡물을 대량 비축하는 전략을 유지, '20년 이후 중국의 곡물 수입이 급증하여 '20-'21년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은 2,950만 톤으로 과거 최고치 대비 약 5배 증가함
 - 이 중 미국산 옥수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중국이 최대 옥수수 수입국으로 부상함
 - 다만, '23년 이후 상황이 반전되어 '22-'23년 미국산 옥수수 대중국 수출량이 50% 감소한데 이어 '23-'24년 추가로 60%가 감소함
-  한편, '24-'25년 중국의 옥수수·밀 생산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재고³⁵⁾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아울러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전망으로 농산물 수입 수요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기에 주요 곡물 수출국들은 '20년 이전과 같은 낮은 중국 의존도를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34) REUTERS(2025.02.12.), [https://www.reuters.com/markets/commodities/is-china-ending-its-stint-major-global-grain-importer-braun-2025-02-11/\(2025.02.19. 검색\)](https://www.reuters.com/markets/commodities/is-china-ending-its-stint-major-global-grain-importer-braun-2025-02-11/(2025.02.19. 검색))

35) 중국의 곡물 재고율은 옥수수의 경우 65%, 밀은 86%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 시 매우 높은 재고 수치임

3) 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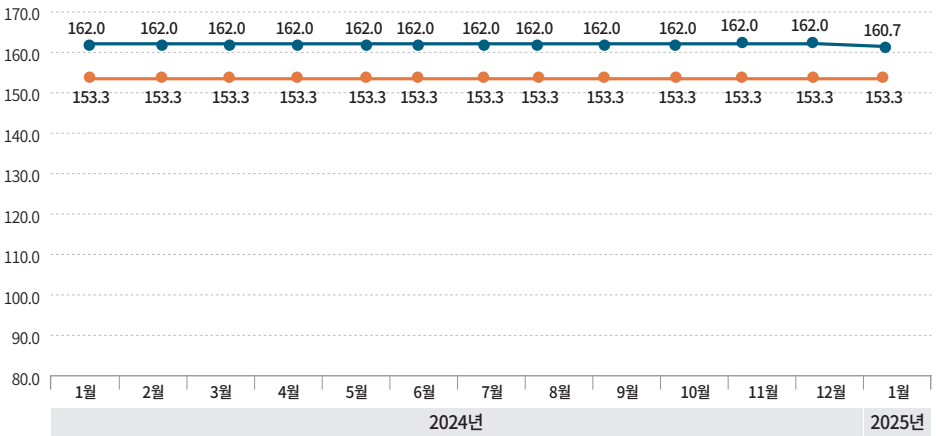
1 '25년 1월 포틀랜드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소폭 감소

- '25년 1월 포틀랜드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9% 감소한 160.7p,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전월과 동일한 153.3p를 기록함
- 포틀랜드 시멘트는 '23년 12월 이후 변동 없이 보합세를 보였으나 12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임

(단위: 2020년 = 100 기준)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 포틀랜드
● 고로슬래그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0.7	-0.9	-0.9
고로슬래그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0.0	0.0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5.02.24.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유연탄 가격 하락에도 국내 시멘트 가격 유지³⁶⁾

최근 유연탄 국제 시세가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멘트 가격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 시멘트 제조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이 석 달 동안 20% 이상 하락했으나,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 가격 인하 효과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
- 호주 뉴캐슬산 유연탄 가격은 '24년 11월 톤당 평균 145달러에서 '25년 1월 115달러로 하락함
- 이는 중국의 석탄 증산으로 인한 공급 증가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가 원인으로 작용함
- 특히 중국의 석탄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석탄 재고가 늘어나면서 국제 시세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음

국내 시멘트 업계는 유연탄 가격 하락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음

- 유연탄은 전량 수입하는 원재료로, 환율이 상승하면 가격 하락 효과가 상쇄됨
- 최근 석 달 동안 원·달러 환율이 5% 이상 상승했으며, 유연탄 거래가 통상 1년 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상승의 영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큼

물류비와 전기요금 등의 상승도 시멘트 가격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시멘트 업계는 유연탄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입 물류비가 상승하고 전기요금 부담까지 커져 시멘트 가격을 낮추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함
- 이와 더불어 국내 건설 경기 침체로 착공 물량이 감소하면서 시멘트 출하량이 35년 만에 4,000만 톤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6) 한국경제(2025.02.0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038834i>(2025.02.20. 검색)

4) 모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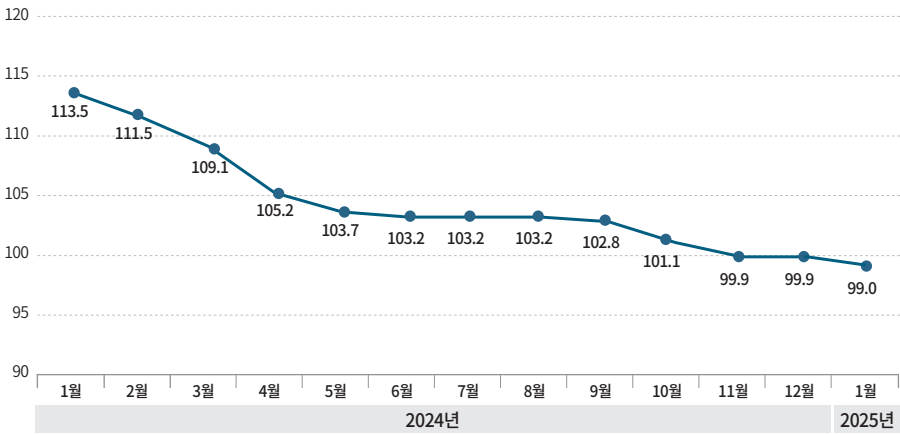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1 '25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 99.0p 기록, 감소세 지속

'25년 1월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9%, 전년 동월 대비 12.8% 감소한 99.0p를 기록함

(단위: 2020년 = 100 기준)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113.5	111.5	109.1	105.2	103.7	103.2	103.2	103.2	102.8	101.1	99.9	99.9	99.0	-0.9	-12.8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f2\(2025.02.24.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f2(2025.02.24.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서해 EEZ(배타적 경제수역) 골재채취 연장 추진³⁷⁾³⁸⁾

- 정부가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하고 채취량을 30%가량 늘리는 방안을 추진함
 - 이에 따라 11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가 열렸으나, 참석한 어민들이 해양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며 강하게 항의하는 등 갈등이 심화됨
- 서해 EEZ 골재채취는 수도권 등 건설 현장의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한 조치로 추진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지난 '20년 8월 군산시 어청도 서쪽 26km 해역을 골재채취단지로 신규 지정해 5년간 운영해 왔으며,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27년 2월까지 채취를 지속할 계획임
 - 이번 변경으로 기존 2,512만 m³에서 3,262만 m³로 채취량이 증가하게 됨
- 지역 어민들은 바닷모래 채취가 어족자원의 서식과 산란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어업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함
 - 공청회에서도 일부 어민들이 반발하며 행사장을 떠나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음
 - 국가 차원의 골재 수급 계획은 필수적이지만, 바닷모래 채취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 지원 및 어업 피해 대책과 함께 가공모래·재생골재 등의 대체재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7) 전남일보(2024.02.11.),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412271805344870193(2025.02.20. 검색)

38) 전남일보(2025.02.12.),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412271805344870193(2025.02.20. 검색)

5) 석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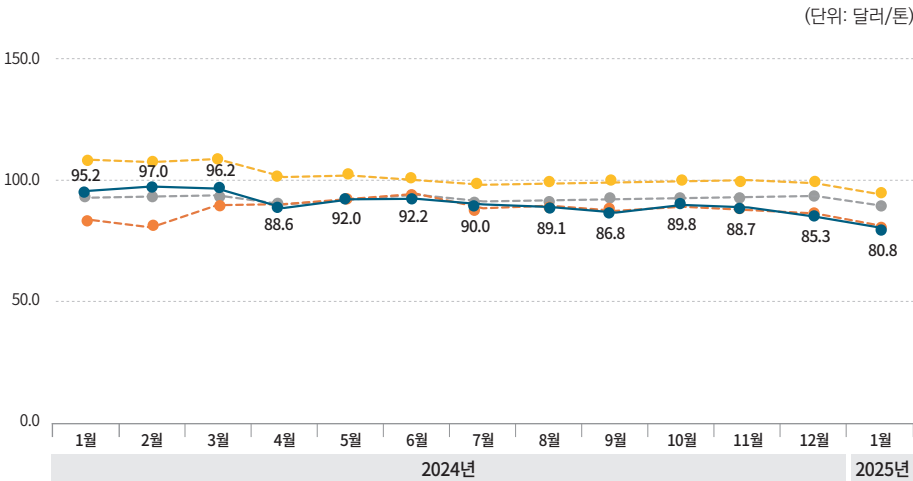


1 '25년 1월 유연탄 가격 전월 대비 감소

- 호주 뉴캐슬산(5,500kcal/kg, NAR) FOB 기준 연료탄 1월 평균가는 톤당 80.8달러로 전월 대비 5.3% 감소함
- 지역별로는 남아공 리차드베이산과 인도네시아 칼라만탄산, 중국 남부의 유연탄 가격 모두 각각 5.6%, 3.5%, 4.4% 감소함(전월 대비 기준)

유연탄 가격 추이

● 뉴캐슬
● 리차드베이
● 칼리만탄
● 중국남부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뉴캐슬	95.2	97.0	96.2	88.6	92.0	92.2	90.0	89.1	86.8	89.8	88.7	85.3	80.8	-5.3	-15.1
리차드베이	84.1	81.0	89.6	90.1	92.4	93.9	88.3	89.5	87.5	89.0	88.3	86.4	81.6	-5.6	-3.0
칼리만탄	92.6	92.7	93.3	90.4	92.4	93.7	91.5	91.6	91.9	93.1	93.6	93.2	90.0	-3.5	-2.9
중국남부	108.1	107.2	108.4	101.5	102.0	99.7	98.4	99.2	99.8	100.7	100.2	98.9	94.6	-4.4	-12.5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02.20](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02.20)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 '24년 전 세계 석탄발전용량 사상 최고치 기록³⁹⁾

 글로벌에너지모니터에 따르면, '24년 세계 석탄발전용량은 약 2,175GW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힘

-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 등으로 에너지 수요 급증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스 가격 급등이 원인으로 분석됨
- 글로벌에너지모니터는 석탄 수요가 유럽과 미국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에서는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함
- 특히 세계 최대의 석탄소비국인 중국의 지난해 석탄 수입량은 14.4%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중국이 석탄 비축량을 늘리는 이유는 이상기후로 전력이 부족해질 것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함
- 또한 인도는 극심한 폭염으로 냉방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시멘트 및 철강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석탄 소비가 증가함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석탄 수요가 '24년 87억 7천만 톤으로 절정을 찍고 '27년까지 이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함

- IEA는 '25년에도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AI와 데이터센터가 에너지 수요를 가속화하면서 석탄 수요가 같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전력 사용량이 많은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어날수록 값싸고 안정적인 석탄발전을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39) 뉴스트리(2025.02.10.),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502100012>(2025.02.19.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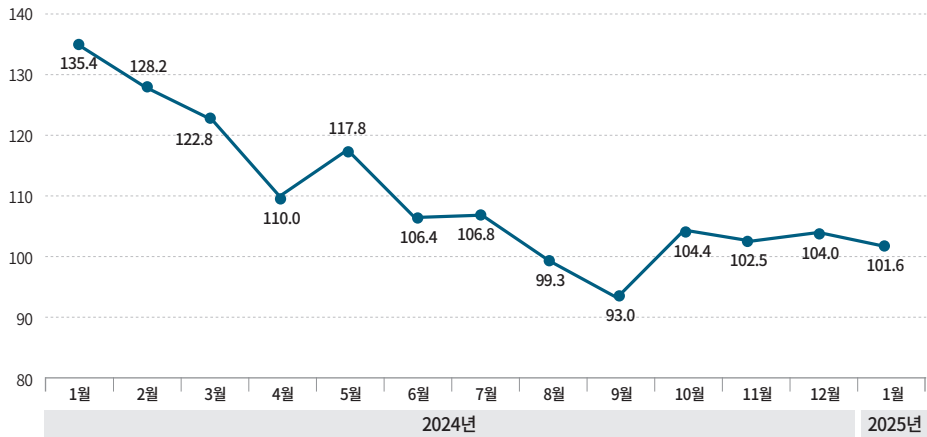
6) 철광석



1 '25년 1월 철광석 가격 전월 대비 2.3%, 전년 동월 대비 25.0% 감소한 101.6달러 기록

- '25년 1월 철광석 가격(Fe 62%, 중국 칭다오항 도착기준)은 톤당 101.6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함
- '24년 연말에 발표된 중국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대감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면서 철광석 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세로 전환됨
- 2월에는 장기간의 춘절 연휴의 영향 및 봄철 건설 시즌을 앞두고 철강 수요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폭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철광석 가격 추이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철광석	135.4	128.2	122.8	110.0	117.8	106.4	106.8	99.3	93.0	104.4	102.5	104.0	101.6	-2.3	-25.0

주: 62% 분광 중국 칭다오항 도착 기준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2025.02.18. 검색\)](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2025.02.18.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호주 헤드랜드항, 사이클론 피해 우려 지속⁴⁰⁾

-  세계 최대 철광석 수출 항만인 헤드랜드항은 지난 2월 12일 최대 시속 290km 강풍을 동반한 사이클론 ‘젤리아’의 상륙을 앞두고 운영을 중단함
-  젤리아가 15일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운영을 재개하였으나 여전히 강풍과 폭우로 인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 젤리아는 상륙 당시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상륙해 현재는 4등급으로 다소 약화된 상태이며 필바라주 내륙 동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어 광산들이 대비에 나서도 있음
 - Fortescue사의 Iron Bridge 철광산은 폐쇄했으며, BHP사 및 Rio Tinto사도 비필수 출장 중단 등의 추가 대비책을 시행함
-  한편, 항만 및 광산의 폐쇄 등으로 철광석 공급에 차질에 우려가 고조되면서 철광석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 발레(Vale), 카라자스 광산 확장에 120억 달러 투자⁴¹⁾

-  브라질 대표 광산업체인 발레는 브라질 북부 지역에 위치한 카라자스(Carajás) 광산에서 철광석과 구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700억 헤알(약 120억 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라 밝힘
 - 카라자스 광산은 발레의 최대 철광석 생산단지로 '23년 기준 1억 7,750만 톤을 생산하였으며, 이는 발레 전체 철광석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발레의 이번 대규모 투자는 브라질 내 광산업 확대와 글로벌 철광석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됨
 - 한편, 발레는 과거 브라질 정부로부터 국내 투자 부족 및 '25년 댐 붕괴 사고 후 보상 지연 등을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에 따라 '24년 10월 해당 사고와 관련한 수리 및 보상 협약을 체결함
 - 또한, '25년 1월 발레 CEO는 브라질 대통령과의 첫 공식 회담 등을 통해 발레 사업 계획과 브라질 국가 발전 전략 간 강한 연계성을 강조하며, 정부 협력을 강화할 뜻을 비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40) 버핏연구소(2025.02.18.), <https://buffettlab.co.kr/news/view.php?idx=49486>(2025.02.18. 검색)

41) GMK Center(2025.2.16.), <https://gmcenter.com/en/news/vale-invests-12-billion-in-expansion-of-the-carajas-field/>(2025.2.18. 검색)

7) 기타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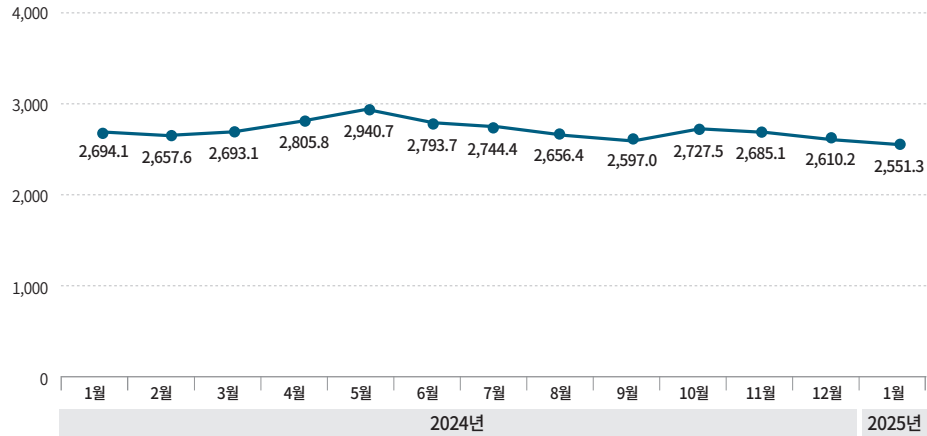


광물종합지수 추이

1 1월 광물종합지수는 2,551.3p로 전월 대비 2.3% 감소

’25년 1월 광물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2.3%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2,694.1p) 대 5.3% 감소한 2,551.3p를 기록함

(단위: 2016년 = 1,000 기준)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종합지수	2,694.1	2,657.6	2,693.1	2,805.8	2,940.7	2,793.7	2,744.4	2,656.4	2,597.0	2,727.5	2,685.1	2,610.2	2,551.3	-2.3	-5.3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위권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MnrlIndc/IndxMin\(2025.02.20. 검색\)](https://www.komis.or.kr/Komis/MnrlIndc/IndxMin(2025.02.20.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 우리나라 정부, 해외 핵심광물에 연 500억 원 공동투자⁴²⁾

-  정부는 지난 18일 광해광업공단 및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과 해외자원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핵심 광물 투자 협의회’를 만들고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함
 - 정부는 올해부터 연간 500억 원 수준에서 핵심 광물에 대해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하기로 결정함
 -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국내 자원 공기업 위주로 해외 광물 사업을 포괄하는 자원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했었으나,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해외자원개발 사업 자체가 금기시되어옴
 - 이후 요소수 대란과 희토류 등에 자원 무기화 등 공급망 충격이 벌어지면서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음
 -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대 10조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기금도 출범함
 - 공급망기금을 운용하는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2차전지 국내 공장 증설, 요소수 수입, 사료용 곡물 구매 등 공급망 다변화 프로젝트에 대출을 시행함
 - 정부는 앞으로도 공급망기금을 활용해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대출뿐만 아니라 직접 투자를 진행할 계획임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42) 연합뉴스(2025.02.18.),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183262i>(2025.02.19. 검색)

8) 목재



1 '24년 목재류 수입액, 전년 대비 2.9% 감소한 6조 1,162억 원 기록⁴³⁾

- 산림청 임산물수출입통계에 따르면 '24년 목재류 총수입액은 6조 1,1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함

 - 수입국별로는 베트남(9,187억 원), 인도네시아(7,949억 원), 중국(5,147억 원), 캐나다(4,519억 원), 칠레(4,131억 원) 순으로 과거 장기간 1위였던 중국이 3위로 하락함
 - 품목별 수입액은 펄프가 1조8,276억 원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며 1위, 합판이 9,374억 원으로 2위를 기록함
- 건설경기 침체로 원목 수입량은 전년 대비 20.1% 감소하고 제재목도 4.2% 감소함

 - 원목 수입금액은 31.2만 달러에서 24.5만 달러로 6.5만 달러(약 900억 원) 감소함
 - 반면 목질판상재인 합판과 MDF는 국내 대형 공장 생산 중단으로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임
 - 칩(펠릿)은 544만 톤(전체 물량의 약 40%)이 수입되어 전년 대비 8.7% 증가했으나, 단가가 16.8% 하락하여 수입금액은 9.5% 감소함
- '24년 4/4분기부터 목재류 수입단가가 저점을 지나 상승 추세를 보임

 - 11월과 12월 비교 시 원목, 단판, 마루판, PB와 OSB, 목탄, 성형목재, 칩(펠릿), 판지류 등 단가 상승 품목이 증가함
 - 업계 관계자는 “작년 내내 판매 부진이 심화되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업계 전반의 어려움을 전함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43) 한국목재신문(2025.02.17.), <https://www.wood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728>(2025.02.19.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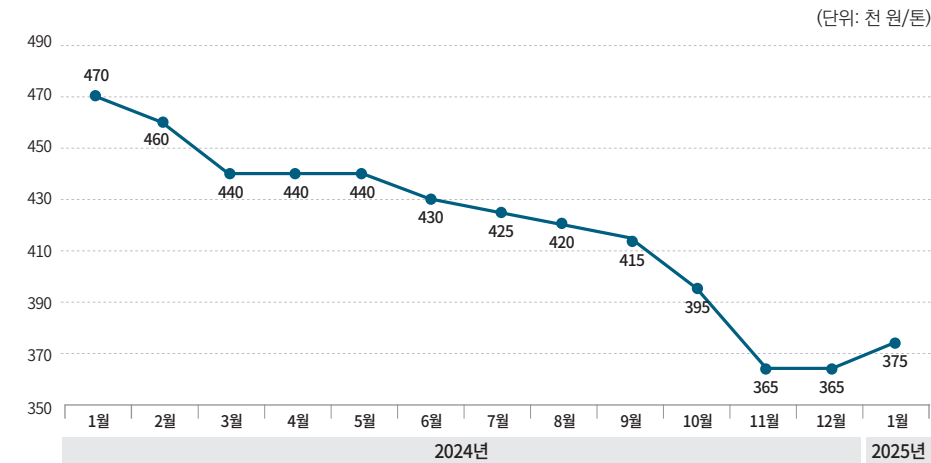
9) 고철



고철(생철)
연간 가격 추이

1 국내 고철 가격 소폭 상승

- 국내 1월 생철 가격은 전월 대비 2.7% 증가한 톤당 37만 5천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0.2% 하락한 수준임
- '24년 1월에 톤당 47만 원을 기록했던 고철 가격은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 또는 보합세를 기록했으나, '25년 1월 소폭 증가세가 나타남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생철	470	460	440	440	440	430	425	420	415	395	365	365	375	2.7	-20.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5.02.21.), <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5.02.24. 검색)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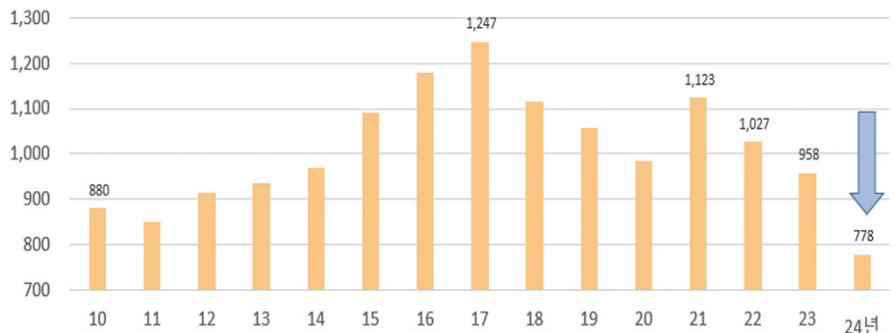
2 국내 고철 자급률 첫 90% 돌파⁴⁴⁾

📌 국내 고철 자급률이 사상 첫 90%대까지 돌파하며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함

- 한국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24년 국내 고철 자급률은 90.3%로 전년(86.6%) 대비 3.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고철 자급률 산정은 수입을 제외한 국내 공급량(국내 구입+자가 발생)에서 소비량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인해 고철 국내 공급 대비 소비 감소 폭이 컸고, 이에 따라 자급률도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 지난해 국내 제강사 고철 소비는 2,264만 톤으로 전년 대비 13.3% 감소하며 협회 집계 이래(2010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최근 고점인 '21년(2,830만 톤)과 비교하면 무려 20% 넘게 줄어든 수준임
- 지난해 고철 국내 구입은 1,579만 톤으로 전년 대비 8.6% 감소했으며, 자가 발생 역시 12.7% 감소하여 457만 톤을 기록하였고, 동기간 수입도 42.2% 급감한 205만 톤을 기록하였음
- 특히 이 같은 고철 소비 감소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봉형강 시황 악화 영향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되며, 봉형강 대표 품목인 국내 철근의 수요는 지난해 778만 톤까지 감소하여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
- 그러나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에 철근 수요는 올해도 뚜렷한 반등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며, 건설경기 선행지표 개선과 금리 인하 관측도 나오고 있으나, 상반기까지는 당장의 건설투자 위축으로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단위: 만 톤)

국내 철근 수요 추이



자료: 철강금속신문(2025.02.10.), <http://pdf.snmnews.com/PDF/REAL/2025/02/10/PS010210010100101A0001.pdf>(2025.02.20. 검색)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44) 철강금속신문(2025.02.12.), <http://pdf.snmnews.com/PDF/REAL/2025/02/12/PS010212010100301B0001.pdf>(2025.02.20.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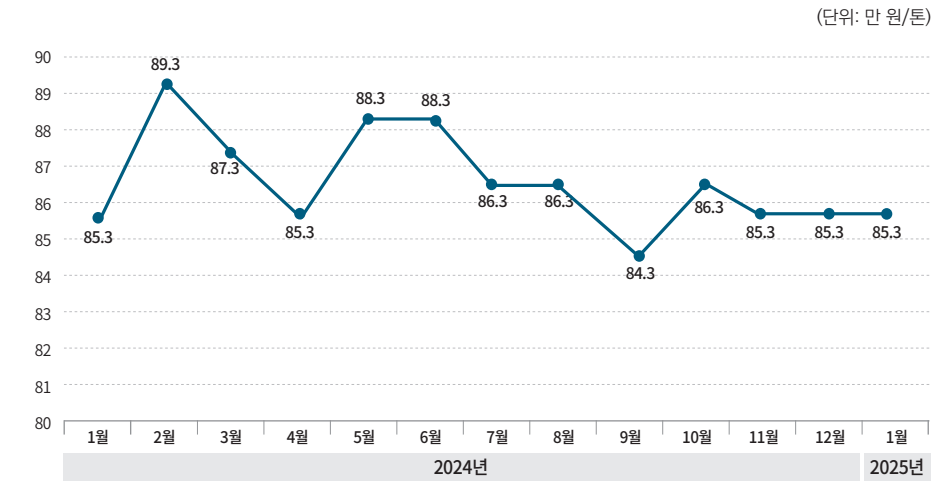
10) 철재



열연코일 연간 가격 추이

1 국내 열연코일 가격 보합세 기록

- 1월 열연코일(3.0×4×8mm) 가격은 85만 3천 원으로 전주에 이어 보합세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동일한 수준임
- '23년 5월까지 톤당 108만 원대를 기록했던 열연코일 가격은 '23년 6월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23년 7월부터 꾸준히 톤당 80만 원~90만 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음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열연코일	85.3	89.3	87.3	85.3	88.3	88.3	86.3	86.3	84.3	86.3	85.3	85.3	85.3	0.0	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5.02.21.), [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5.02.24. 검색\)](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5.02.24. 검색))

2 EU 등 대미 수출국, 트럼프 철강 관세 맞대응⁴⁵⁾

-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선언에 주요 대미 수출국들이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즉각 표출하며, 트럼프발 글로벌 무역 분쟁이 심화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0일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3월 12일부터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멕시코, 캐나다, EU 등 주요 대미 수출국 정부와 산업계는 이를 비판하며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냄
 -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번 관세 선언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필요하다면 캐나다는 확고하고 분명한 반응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캐서린 콥튼 캐나다 철강제조협회(CSPA) 회장도 성명을 통해 심히 우려된다며 정부가 보복 조치에 나서달라고 요구함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EU는 불공정한 관세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에 비례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마로스 셰프코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도 새로운 미국 관세는 양쪽 다 손해를 보는 시나리오로, 유럽이 대응에 나설 시간이 됐다고 발표함
 - 유럽철강협회도 성명을 통해 EU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며, 이번 관세 조치는 이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유럽 철강 산업의 시장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EU가 즉각 대응에 나서 유럽 철강 산업을 보호해 달라고 요구함
 -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미국이 멕시코와의 철강·알루미늄 무역에서 거둔 흑자를 고려하면 이번 관세는 부당하며, 멕시코철강협회(Canacero)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관세는 멕시코 철강 산업과 북미 전역의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멕시코산 철강이 관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미국산 철강에 보복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함
 - 한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 장관은 25% 관세를 일본에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고, 관세가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피면서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하겠으며, 관세 면제가 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수출보험기관인 NEXI 보험금 지급 관련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함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45) 철강금속신문(2025.02.17.), <http://pdf.snmnews.com/PDF/REAL/2025/02/17/PS010217010100301B0001.pdf>(2025.02.20. 검색)

11) 자동차



① '24년 12월 자동차산업, 국산차 내수, 수출 및 생산 모두 증가⁴⁶⁾

- 12월 내수는 전월 대비 3.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0.6% 감소한 142,822대 기록함
 -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연말 프로모션 확대와 르노코리아의 신차효과로 국산차는 2.0% 증가했으나, 수입차는 9.8% 감소함
- 12월 수출은 전월 대비 12.1%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9% 증가한 251,820대 기록함
 - 업계의 연말 수출물량 우선 대응, 기아의 11월 말 통관·선적 지연 물량(폭설 영향) 반영, K5 수출 증가(미국→국내생산 전환) 등으로 현대를 제외한 모든 업체들의 수출이 증가함
- 12월 생산은 전월 대비 8.4%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6% 증가한 373,361대 기록함
 - 불법 정치파업 등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산차 내수와 수출 증가에 힘입어 생산량이 상승함

'24년 12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률		
	연간	12월	1~12월	11월	12월	1~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내수	1,739,249	143,245	1,739,249	147,841	142,822	1,626,245	-3.4	-0.3	-6.5
(국산차)	1,451,663	114,984	1,451,663	121,713	117,337	1,344,432	-3.6	2.0	-7.4
(수입차)	287,586	28,261	287,586	26,128	25,485	281,813	-2.5	-9.8	-2.0
수출	2,766,271	247,206	2,766,271	224,645	251,820	2,782,612	12.1	1.9	0.6
(완성차 수출액)	70,864	6,384	70,864	5,640	6,046	70,786	7.2	-5.3	-0.1
(부품 수출액)	22,954	1,771	22,954	1,768	1,875	22,549	6.0	5.8	-1.8
생산	4,243,597	367,631	4,243,597	344,358	373,361	4,128,242	8.4	1.6	-2.7

단위 : 대, 백만 \$, %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산업동향(2025.01.24.),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32&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5.02.19. 검색)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46) 한국자동차산업협회(2025.01.24.),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35&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5.02.19. 검색)

2 트럼프, 자동차 수입 관세 25% 부과 시사... 한국 자동차 업계 직격탄 우려⁴⁷⁾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함

 -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관세가 “25% 정도가 될 것”이라 밝히고, 4월 2일 공식 발표 예정임을 언급함
 -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25%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이며, 향후 1년간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침
-  이번 발표는 한국 자동차 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지난해 한국에서 수출된 자동차 약 278만 대 중 143만 대가 미국 수출로, 전체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KB증권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10% 관세 부과 시 현대·기아차의 연간 영업이익이 4조 3,000억 원 감소 예상됨
 - 25%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멕시코 공장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도 타격 예상됨
-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공장 설립 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 가능성도 언급함

 -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할 시간을 주고 싶다”며 “미국에 공장을 세우면 관세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47) 월간조선(2025.02.19.), [https://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21463&Newsnumb=20250221463\(2025.02.19. 검색\)](https://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21463&Newsnumb=20250221463(2025.02.19. 검색))

3 1월 자동차 수출액 20% 감소한 반면, 하이브리드차 역대 최대 기록⁴⁸⁾

-  '25년 1월 자동차 수출액은 49억9,300만 달러(약 7조2,00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19.6% 감소함

 -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전년 대비 4일 감소, 총 20일)와 전년도 1월 역대 최고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하이브리드차(HEV) 수출은 3만6,000대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며 호조를 보임
-  지역별 수출액은 북미가 26억1,800만 달러로 최대 비중을 차지함

 - 이어서 EU 64억800만 달러, 기타 유럽 3억8,000만 달러, 아시아 4억6,900만 달러, 중동 4억1,900만 달러, 중남미 1억7,600만 달러, 오세아니아 2억4,700만 달러, 아프리카 2,700만 달러 순임
-  1월 자동차 생산량은 29만59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8.9% 감소함

 - 르노코리아의 전기차 생산설비 구축을 위한 부산공장 1월 가동 일시 중단과 조업일수 감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
 - 내수 판매량은 10만5,928대로 전년 대비 9.0% 감소했으며, 국산차는 8만9,446대(-13.5%), 수입차는 1만6482대(+25.9%)가 판매됨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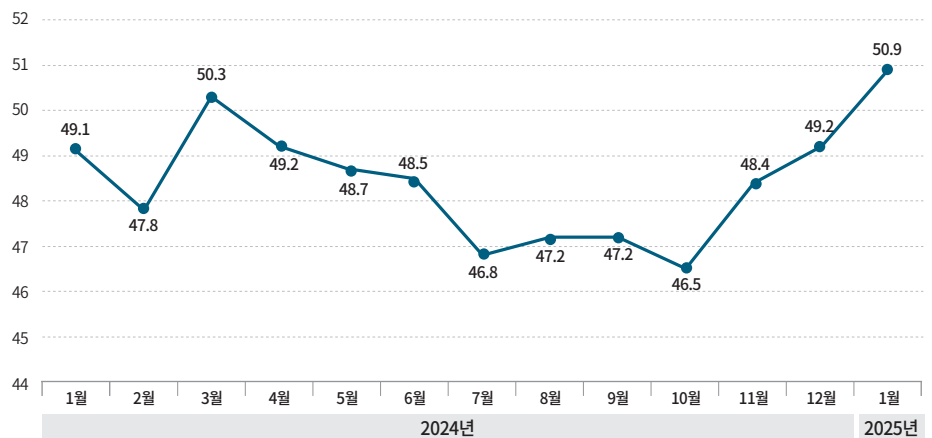
12) 잡화



1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9로 전월 대비 상승⁴⁹⁾

1월 PMI지수는 전월(49.2p) 대비 상승하였으며, 시장의 예상(49.8p)을 상회한 실적을 기록함

- 이러한 수치는 제조업 부문이 26개월 연속 수축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확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신규 주문은 '24년 12월, 52.1p에서 '25년 1월, 55.1p로 더 빠른 증가세 보임
- 아울러 생산 지수 역시 '24년 12월, 49.9p에서 '25년 1월, 52.5p로 고용 지수는 '24년 12월, 45.4p에서 '25년 1월, 50.3p로 각각 반등함
- ISM 제조업 조사위원회(Manufacturing Business Survey Committee)에 따르면 가격 지수(Prices Index)는 4개월 연속 상승, '25년 구매자들의 가격 합의 및 적용을 반영한데 따른 것으로 밝힘



자료: Trading Economics(2025.02.03.), KMI 작성

미국 PMI (구매관리자지수) 추이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9) Trading Economics(2025.02.03.),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2025.02.19.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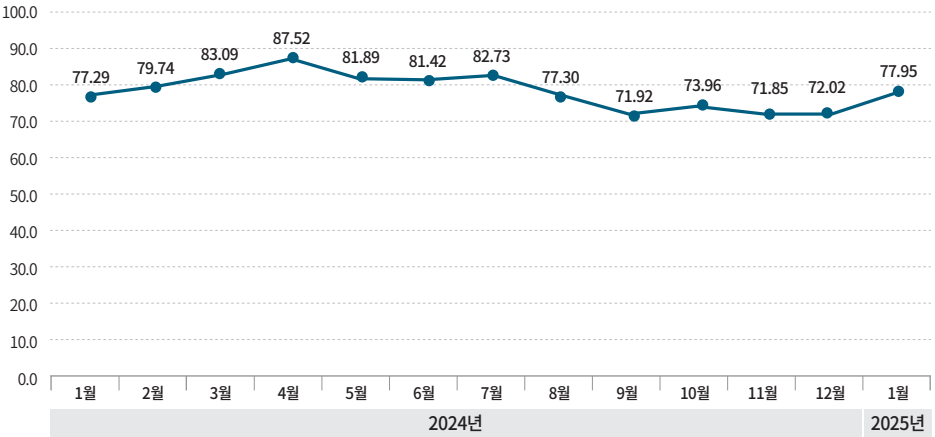
13) 유류



1 '25년 1월 국제유가, 전월 대비 크게 상승

- '24년 11월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세계 3대 유종의 배럴당 평균 유가는 1월에 전월 대비 8.2% 상승하면서 77.95달러를 기록함
 - OPEC+ 중심의 석유 감산 정책 유지,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등으로 유가가 상승함
 - 국제사회의 갈등과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유가는 당분간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Dubai	78.85	80.88	84.18	89.17	84.04	82.56	83.83	77.60	73.52	74.94	72.61	73.23	80.41	9.8	2.0
Brent	79.15	81.72	84.67	89.00	83.00	83.00	83.88	78.88	72.87	75.38	73.40	73.13	78.35	7.1	-1.0
WTI	73.86	76.61	80.41	84.39	78.62	78.70	80.48	75.43	69.37	71.56	69.54	69.70	75.10	7.7	1.7
평균	77.29	79.74	83.09	87.52	81.89	81.42	82.73	77.30	71.92	73.96	71.85	72.02	77.95	8.2	0.9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제석유가격, [https://www.petronet.co.kr/v4/sub.jsp\(2025.02.18. 검색\)](https://www.petronet.co.kr/v4/sub.jsp(2025.02.18.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정유 4사, 지속가능항공유(SAF) 전용 공장 공동 건설 추진⁵⁰⁾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개 사는 SAF 전용 공장을 공동으로 건설하기로 결정함

- 정유 4사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공동 투자 및 운영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조 단위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30년 2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SAF 시장을 선점하기 위함임
- 폐식용유·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하는 SAF는 일반 항공유 대비 CO₂ 배출을 최대 80% 감소시킬 수 있음
- EU는 올해 2%를 시작으로 '50년까지 SAF 혼합 비율을 70%로 확대할 계획이며, SAF 미혼유 항공기는 EU 공항에서 이착륙이 불가함
- 우리나라도 '27년부터 SAF 1% 이상 첨가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장조사기관인 스트래티스틱스MRC는 SAF 시장이 '23년 1조 5,500억 원에서 '30년 21조 7,800억 원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음
- 다만, 일반 정유공장의 SAF 수율은 10% 미만이나 SAF 전용 공장에서는 투입한 폐식용유의 60~80%를 SAF로 제조할 수 있어 SAF 전용 공장 건설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공장은 울산·여수·대산산업단지 중 부지를 선정할 예정임

 정유사들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에 합작 공장 설립 계획을 설명하고 세제 혜택 등 지원을 요청함

- 정부는 SAF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3%인 정유시설 투자세액 공제율의 최대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각국의 수출 규제로 막힌 SAF 원료를 대신 구매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0) 한국경제신문(2024.01.2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2492751>(2025.02.18. 검색)

3 LNG, 카타르 대신 미국산 도입 및 7광구의 한미일 공동개발 필요성 제기⁵¹⁾

미국 상원의원 댄 설리번은 한국·일본·대만의 미국산 LNG 도입 필요성을 주장함

- 중동에 위치한 카타르는 불안정한 국가로,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알래스카산 LNG 도입 시 미국 해군의 호위를 받을 수 있고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가스 시추 확대와 알래스카산 LNG 생산확대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며, 약 118억 배럴의 석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에 천연가스를 판매할 계획임
- 다만, 기업의 관심이 저조하고 환경단체의 반대로 현실적인 개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미국 하원의원 아미 베라는 7광구의 한미일 공동개발 방안을 제기하며, 한미일 협력이 중국의 도발 억제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함

- 7광구는 한국이 1970년 국내법으로 설정하고, 1974년 유효기간 50년을 설정하여 일본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한일대륙붕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 다만, 제7광구 개발은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한일 관계 냉각으로 탐사 중단된 상황에서 중국이 인근 해역에서 탐사를 개시하자 이 사업에 미국이 참여하는 방안이 제기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1) 에너지경제(2025.02.13.),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50212024355047/2025.02.18>. 검색)

4 미국산 LNG, 아시아 최소 6개국이 수입 확대 검토⁵²⁾

-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미국의 관세 강화 대응책으로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고려하고 있음
 - 미국과 무역 흑자를 기록 중인 아시아 국가들은 추가 관세 인상 회피 방안으로 미국산 LNG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1월 LNG 신규 수출 허가 유예 해제 후 LNG 수출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있어 '31년까지 연간 1억 톤의 추가 LNG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우리나라는 '24년 미국산 LNG를 570만 톤 수입했으며,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 및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추가 도입 가능성 시사함
 - 일본은 전체 LNG 수입의 10%가 미국산이며, 미국산 LNG의 추가 도입 및 알래스카 투자를 추진할 계획임
 - 그 외, 인도, 대만, 방글라데시, 베트남도 미국산 LNG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2) 에너지플랫폼뉴스(2025.02.13.),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50212024355047\(2025.02.18. 검색\)](https://www.ekn.kr/web/view.php?key=20250212024355047(2025.02.18. 검색))

14) 화학공업 생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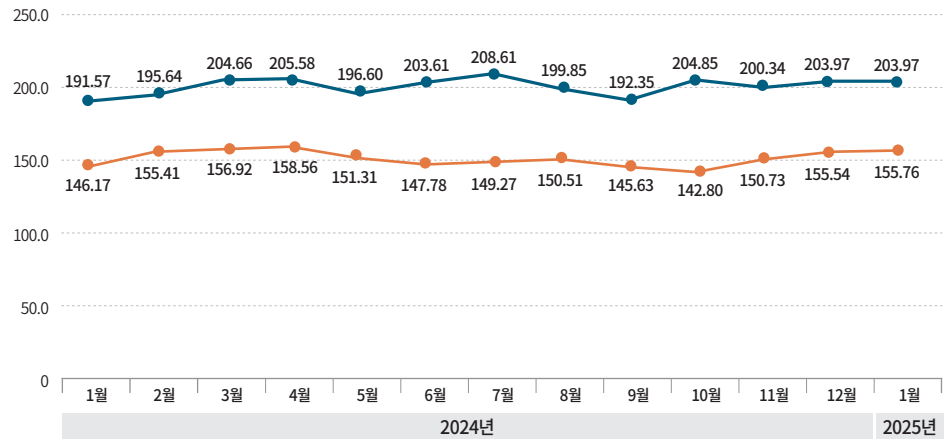
① 1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에틸렌 소폭 상승

1월 나프타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같은 수준인 203.97p를 유지했으나, 에틸렌은 전월 대비 상승하여 155.76p를 기록함

- 원유 정제를 통해 생산되는 나프타의 '25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원유 가격 상승에도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함
- 나프타 크래킹 등을 통해 생산되는 석유화학산업의 핵심원료인 에틸렌의 '25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6.6% 상승함
- 유가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나프타와 에틸렌 생산자물가지수도 전반적인 추세를 보이지 않고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생산자물가지수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나프타
● 에틸렌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191.57	195.64	204.66	205.58	196.60	203.61	208.61	199.85	192.35	204.85	200.34	203.97	203.97	0.0	6.5
에틸렌	146.17	155.41	156.92	158.56	151.31	147.78	149.27	150.51	145.63	142.80	150.73	155.54	155.76	0.1	6.6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5.02.20.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5.02.20.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그린수소 도입, 암모니아 활용이 가장 경제적⁵³⁾

-  연구결과,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 암모니아를 해외에서 도입하는 것이 현재 기술 수준에서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나옴
 - '넥스트그룹 연구원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연구원이 공동 연구해 발표한 '해외 도입 그린수소의 가치사슬 단계별 비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암모니아 도입 비용은 2.80~7.61달러/kgH₂로 액화수소 5.27~9.41달러/kgH₂보다 저렴함
 - 암모니아 운송 시 LNG 추진선 및 전기차 이용이 가장 경제적 경로로 확인되며, '30년 4.30달러/kgH₂, '40년 3.24달러/kgH₂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무탄소 운송을 위해 암모니아 추진선을 도입하는 것은 LNG 추진선을 이용하는 것보다 경쟁력이 부족하며, 내륙운송 시 전기차를 이용한 수소 운송이 내연기관보다 저렴함
-  암모니아는 액화수소 대비 1.8배 높은 저장 밀도 보유하고 있으며, 기화율이 낮아 손실이 적어 저장 및 운송 효율성에서 우수함
 - 정부는 '36년까지 20.9TWh 규모의 암모니아 혼소 발전량 확보를 계획하고 있어 도입한 암모니아를 직접 활용하는 것은 비용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며, 탄소 배출량도 가장 적음
 - 다만, 암모니아 재변환(크래킹) 비용이 액화수소 기화비용 대비 약 8.7배 높아 암모니아 도입 경제성 강화를 위해서는 크래킹 기술의 상용화 및 대형화가 필요함
 - 세계 에너지 전환 전망(IRENA)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그린수소 생산 잠재량은 호주나 미국 대비 현저히 낮아 대표적인 수소 수입국으로 분류됨
 - 해외수소 도입 경제성 제고를 위해서는 저장설비를 대형화, 기화율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관련 기업의 안정적 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탄소중립 운송수단의 도입 촉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등이 필요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3) 에너지경제(2025.02.12.),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50212022344858\(2025.02.18. 검색\)](https://www.ekn.kr/web/view.php?key=20250212022344858(2025.02.18. 검색))

3 서산시, 수소도시 조성 추진⁵⁴⁾

- 서산시는 올해부터 '28년까지 4년간 총 300억 원을 투입해 수소에너지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수소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임
- 태양광과 연계한 1MW급 수전해 시설 구축을 통해 친환경 수소를 생산하고 모듈형 도심항공교통(UAM) 수소 충전 인프라를 설치할 계획임
-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생산된 부생수소를 에너지슈퍼스테이션까지 공급할 약 2km의 관을 설치하는 등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거쳐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수할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로 석유화학 업계 기대감 상승⁵⁵⁾

-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석유화학제품의 원가 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
-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 후 협상 시작에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 협상을 위한 실무 대표단 구성에 착수함
-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러 당국자 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종전 후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정상화되면 국제 유가 하향 조정 및 생산 원가 절감이 예상되어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로 원료비 부담이 증가한 반면,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를 저가에 수입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옴
- 종전 이후 재건 사업이 진행되면 석유화학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PVC, 폴리스티렌, 폴리우레탄 등 건설 자재 원료 수요 확대 예상되며, 경기 부양 효과로 석유화학 제품 시장 성장이 기대됨
- 또한, 글로벌 물류망 복구 시 원유·나프타 등 원자재 가격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4) 연합뉴스(2025.02.14.),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4030800063?input=1195m>(2025.02.18. 검색)

55) 뉴스토마토(2025.02.15.),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53600&inflow=N>(2025.02.18. 검색)

연구책임자

최석우 항만수요분석연구실장

연구진

이기열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연구위원

김영훈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신정훈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조아현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최상균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조성현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연구원

감리

김근섭 항만연구본부장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5년 2월 28일

편집·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편집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TEL** 02-2273-1775